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EMBASSY OF THE DEAD

가제 : 죽은 자들을 위한 대사관

저자 : Will Mabbitt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6월 12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데뷔작 『The Unlikley Adventures of Mabel Jones』로 브랜포드 보스 상(Branford Boase Award) 결승에 오른 작가의 새로운 시리즈
- * “닐 게이먼의 초기 작품처럼 느껴졌다. 어린 독자들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환상적인 이야기.”
- 도서관 사서, 페이스(Fayth)

3박 4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수업을 마치고 느지막한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제이크는 집들이 양쪽으로 줄줄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지나다 갑자기 온 몸이 서늘해진다. 10월 말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햇살이 강해서 추위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날씨가라, 추워서 그런 건 분명 아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골목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작은 고양이였다. 늘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동물만 보면 쓰다듬는 제이크가 손을 뻗었을 때 고양이가 날카롭게 울어대며 노려본 것이다. 깜짝 놀라 손을 치우던 제이크는 고양이의 눈이 응시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고양이는 제이크의 뒤쪽 어딘가를 훑어져라 보고 있었다! 다시 서늘한 기운이 들고, 제이크는 용기를 끌어내 확 뒤돌아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다 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마침내 드러났다. 비쩍 마르고 주름이 가득한, 어딘가 으스스한 남자가 정면에 나타난 것이다.

마술사처럼 높다란 모자를 눌러 쓴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제이크를 살살이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저녁이 다 되어 가는 시각에 ‘좋은 아침’하고 인사를 하더니, 바짝 다가왔다. 자신을 스티프키라고 소개한 이 남자는 ‘넌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꺼내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클립보드에 꽂힌 종이를 꺼내 서명을 하라고 내밀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약간 넋이 나간 제이크는 순순히 그가 건네는 펜을 들고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른 채로 종이 위에 심심풀이로 연습해온 서명을 멋지게 써내려 갔다. 그러자 스티프키는 다시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갈색 종이에 공공 싸인 작은 소포를 건넸다. ‘잘 챙겨서 대사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말을 마친 스티프키는 홀연히 사라지고, 제이크는 크기는 작지만 깜짝 놀랄

만큼 목직한 그 상자를 든 채 집으로 돌아왔다. 화장실로 직행한 제이크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 조심스레 소포를 뜯었다. 금속 장식이 빙 둘러진 보석함 같은 상자 모습을 드러냈는데, 뚜껑을 열자 기겁할 만한 내용물이 눈에 들어왔다. 잘려진 손가락 하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살아 있는 생명들이 사는 세상과 죽은 자들이 사는 사후세계 사이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대사관’이 있다. 제이크가 멋모르고 건네 받은 소포를 개봉했다는 소식은 즉각 이 대사관으로 전해졌다. 대사의 개인 비서로 일하는 모린은 ‘무허가 생명체가 유령의 상자 34를 개봉했으니 즉각 처리하라’는 긴급 메시지를 전달 받고 당혹스러워한다.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일까? 관련 법률이 명시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한 모린은 그 조치란 곧바로 목숨을 빼앗는 것임을 확인하고 더욱 당황한다. ‘유령의 상자 34’는 ‘극비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고, 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없애도록 되어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한 대사관에서 아주 오래 일한 모린도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죽음의 신을 위반자에게 즉각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건 처음이었다.

모린의 연락을 받은 사후세계는 죽음의 신 모킨을 제이크에게 내려 보낸다. 대체 그 손가락이 무엇이었을까 대사관과 사후세계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제이크는 이번에도 이유를 모른 채로 모킨에게 붙들려 ‘영원히 비어 있는 세계’로 끌려 간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모킨과 마주한 제이크는 자신이 유령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스티프키를 보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상자를 건네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놀라운 능력 혹은 저주 때문이었다! 유령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제이크는 겨우 모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만, 억울하게 죽음 목숨이 되지 않으려면 대사관을 찾아 이런 상황을 알려야만 한다.

까다롭고 성격 고약한 집사,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소녀 코라, 교활한 여우 조로까지, 제이크는 위급할 때 발견한 유령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대사관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대신 제이크는 유령들이 사후세계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이크가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있는 대사관은 나름의 문제로 골치 아픈 상태였다. 어쩌면 대사관에 가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 될 지도 모른다.

유령들과 친구가 되어 자칫 잃어버릴 지 모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제이크의 모험은 빠른 전개와 개성 가득한 캐릭터가 등장하여 더욱 흥미롭다. 판타지 시리즈 『해골 탐정(Skulduggery Pleasant)』와 『다크마우스(Darkmouth)』, 『Who Let the Gods Out』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꼭 빠질 만한 재미 있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윌 마빗(Will Mabbitt)은 데뷔 시리즈 『The Unlikley Adventures of Mabel Jones』로 브랜포드 보스 상(Branford Boase Award) 결승에 올랐다. 해당 시리즈는 14개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YOU ONLY LIVE ONCE
가제 : 인생은 한 번 뿐이야
저자 : Jess Vallance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8년 8월 23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홀리 스메일의 『GEEK GIRL』, 카렌 사운더스의 『ME SUZY P』 팬들이 사랑할 엉뚱하고 재기 발랄한 이야기 - 지루한 인생을 신나게 바꾸기로 결심한 소녀의 거침 없는 도전**

오로지 대학 입시만 생각하면서 매사에 모범적으로 살아온 여고생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닥뜨리고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책임감이 넘치고 너무 진지해서 탈인 소녀 그레이시 닥트는 반 년 넘게 감옥처럼 집과 학교만 오가면서 GCSE 시험을 치른 뒤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생각하자마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검색이 부른 이 심각한 오해는 다소 민망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그레이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느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원적인 물음을 떠올린 그레이시는 인생의 의미를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 먹는다. 그것도 입시 준비할 때처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주 치밀하게.

사실 그레이시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단 입과 코 주변에 물집이 보기 흉할 만큼 여러 개 올라와서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고, 목이 답답해서 숨을 평소처럼 편히 쉬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팔과 다리 피부가 노란빛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하필 얼마 전에 이웃 중 한 사람이 온 몸이 누렇게 변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간에 생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피부색이 변한 건 엄청나게 큰 일로 다가왔다. 왜 뜬금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의아해하던 그레이시는 이럴 때 대다수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을 실행한다. 구글을 켜고, 증상을 키워드로 집어 넣고 검색을 한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리슈만 편모충증’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병명이 줄줄이 나왔다. 공부 잘 하고 명석하기로 소문난 그레이시가 이 생소한 병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모래파리가 리슈만 편모충증의 주된 매개체라는 설명 때문이었다. 힘들었던 시험이 끝나고, 엄마 아빠는 오랫동안 고생한 딸을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그레이시의 눈에는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 밖에 안 되는 오빠와 이제 겨우 네 살 된 막내 동생까지 다섯 식구가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2주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다. 그런데 숙소 바깥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여러 개 서 있었고, 결을 지날 때마다 그 위를 웅웅 날아다니는 파리떼가 늘 거슬렸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 파리가 구글 검색에서 이야기하는 모래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파리가 다 비슷한 것 아닐까? 그레이시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정말로 리슈만 편모충증이라면 앞

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레이시는 부모님은 물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장하게 병원으로 향한다. 소변 검사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하므로 미리 집에서 작은 병에 소변까지 준비했다. 병원에서 갑자기 불일을 보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가방에서 굴러다니던 병에서 소변이 새어 나와 온 가방을 적시고 주변 승객들이 다 피하는 곤란한 상황도 벌어졌지만, 비극적인 선고를 받으러 가는 그레이시에게 이런 소동 따위는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응급실 앞까지 와서 덜컥 마음이 약해진 그레이시는 유일한 친구이자 베스트프렌드인 마틸다에게 전화를 걸어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지금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고 짧게 알린 뒤 비장한 마음으로 병원 현관에 들어섰다. 무려 네 시간 가까이 대기실에 앉아 기다린 뒤, 마침내 진료실로 들어간 그레이시는 의사와 만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간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간호사는 다정한 얼굴로 그레이시가 쏟아내는 걱정과 가능성을 듣더니, 목이 붓고 따가운 건 감기 증상이고 입술 주변에 발진은 그냥 헤르페스 감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리슈만 편모증으로 생기는 발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설명과 함께, 피부가 노랄게 된 건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간 피부 태닝 제품을 발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제야 그레이시는 스페인에서 지내는 내내 엄마 선크림을 몰래 가져다 발랐던 사실이 떠올랐다. 가격이 저렴하면 아무거나 집어오는, 엄마가 고른 제품이였다.

이름도 낯선 이상한 병에 걸려 죽을 줄 알았던 그레이시는 병원을 나서면서 몇 시간 동안 지옥과 천국을 오간 것 같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영 개운하지만은 않았다. 불과 대여섯 시간 전만 하더라도 죽음이 목전에 닥쳤다고 확신하면서 스무 살도 못 채운 짧은 인생 동안 못 해본 것들, 특히 공부만 하느라 놓친 것들을 무수히 떠올렸었다. 뉴욕에 한 번도 못 가본 것, 코끼리 타기 체험을 못 해본 것, 체스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지도 못한 아쉬움을 가슴이 옥신거릴 정도로 진하게 느꼈다. 동시에 지난 6개월 동안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요상한 사운드가 흘러 나오는 헤드폰을 낀 채로 어두컴컴한 방안에서 책에 코를 묻고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었다. 돌이켜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중학생 시절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이제 입시도 끝났으니 고등학교 시절도 다 끝나간다. 이렇게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 꿈꾸던 것들은 다 뒤로 밀리고 나이를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레이시의 머릿속을 꼭 채웠다.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 절절한 깨달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분명한 건,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실하고 꼼꼼한 모범생이 자신의 인생도 공부하듯 체계적으로 탐구해가는 과정에는 배꼽 빠지게 만드는 코믹한 사건과 10대 특유의 거침 없고 해맑은 도전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레이시의 인생 탐험기는 올 여름에 이어 내년까지 총 3부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제스 발란스(Jess Vallance)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다. 영화 계약이 체결된 소설 『BIRDY』와 『THE YELLOW ROOM』 등을 썼다.